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5.12.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복면 쓴 산업부”(‘15.12.15, 국민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한전의 에너지시장 독점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아
지난달 19일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에 반대
 - 그리고, 나흘 뒤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시장을
조성하는 등의 정책으로 100조원 시장 창출 정책 발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현행 전력 관련 법체계상 전기사업 허가, 발전 및 판매 등 겸업
금지 예외, 전력거래 등에 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
있으며, 위반 시 전기사업법상 벌칙(형벌 또는 벌금)이 부과됨
* (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요지)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내에서 사업자의
발전사업과 판매사업 허가를 의제하고, 발전·판매의 겸업을 허용
- ☐ 산업부는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이 전기사업법의 위반 없이
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담는 것이
적합하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, 동 개정안의 취지를
반대한 것은 아님
- ☐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에너지 新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자원
중개시장 육성(E 프로슈머 시장), 수요자원 시장 활성화, 전기차
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에너지 신산업 수용을 위한
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음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(044-203-5260)
권덕중 서기관(044-203-5261)